

# 화순군, 백신·바이오기업 연구역량 강화

## ‘국가 신약 개발사업 대상 과제’ 사업 설명회 글로벌 바이오 허브화 도약 R&D 정보 공유

화순군이 보건복지부,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이하 백신특구) 입주기업·병원·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 R&D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화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특화 백신·바이오 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김순남 국가신약개발사업단 R&D본부장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비전과 전략, 포트폴리오·추진 계획, 과제 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설명회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선정과 관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공유해 백신특구 기업들의 R&D 연구 지원 사업 신청과 연구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 분석특허팀장은 “산·학·연·병 협력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화순의 특성을 잘 살려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특허 지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과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추진단은 특허 관련 설명회와 1:1 기업 컨설팅, R&D 지원 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역 주도 백신·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담 조직인 글로벌백신허브화 추진단을 설치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연구 개발부터 생산 제조까지 백신·생물의약품 개발의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들의 신약 후보 물질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기자



화순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가신약개발사업단과 공동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 입주기업·병원·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백신·바이오 R&D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농업인 스마트폰 교육 ‘효응’ 농업·농촌 전반 다양한 활용 기대

화순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효응을 얻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2일 “최근 농장 홍보·마케팅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스마트폰 활용 과정이 수강생들의 효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정보진흥원 김인숙 강사를 초빙해 ▲스마트폰 최적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촬영·편집하기 ▲줌 화상회의 활용 등 실생활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강의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화순군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상시 운영하며 농업인 정보화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나주시가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공인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원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화순사랑상품권’ 10% 할인 확대 이달부터 12월까지 기간 연장

화순군은 2일 “화순사랑상품권을 이달부터 12월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당초 10% 할인 판매 적용 기간은 1-5월과 9-10월 등 총 7개월 간이었다.

화순군은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 할인 판매 적용 기간을 3개월(8월과 11-12월) 추가하기로 했다.

군은 10% 할인 적용 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확보했다.

화순사랑상품권은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광주은행 등 지역 28개 업무 대형 금융기관에서 구매, 환전할 수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 나주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 농·축산물, 가공식품 안전성 공인 소비자 신뢰·농가 소득 상생 강화

나주시가 8월부터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을 공인하는 ‘로컬푸드 인증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6-7월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지난 1일부터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금남점 출하 농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2년 유

예기간을 거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공인받은 산지 농산물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나주로컬푸드 상생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협(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인증받을 수 있다.

나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

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통해 수시 유통 중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 등 부적합 농가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인증제 전면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생산 농가는 소비자 신뢰로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하 농가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농업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나주로컬푸드 출하 농가는 655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회원 수는 1만2천743명이다. /나주=김영수기자

## 나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금리 1.0%로 인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나주시는 2일 “사료 값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323억1천600만원의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대출 상품은 자금 배정을 받은 축산농가에 한해 농·축협에서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 신청 가능하다.

특히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8% 금리를 1.0%로 대폭 낮췄으며 상환 조건도 2년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

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한우 154농가, 젓소 20농가, 돼지 37농가 등 6개 축종 225농가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매월 대출 실행 여부를 파악하고 유보액과 미대출 금액에 대한 재배정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준환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協 부회장 선출

### 정례회 개최 대정부 건의 5건 채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가 제15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 도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윤병태 시장은 부회장 자격으로 협의회 활동에 임한다.

나주시는 2일 “최근 충북 생겨진 천지유역의 숲 일원에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 지역, 11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첫 정례회를 통해 전북 완주군을 회장 도시로, 나주시와 충북 음성군을 부회장 도시로 선출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윤병태 시장의 당면 현안 업무 일정으로 강영구 부시장이 대리 참석했다.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

방이전 시 혁신도시 우선 이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 의무화 근거 마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혁신도시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대정부 건의사항 5건과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병태 시장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과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국 혁신도시 지원, 관리를 위한 (가칭)혁신도시관리청 기구 신설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영수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